

강이야기

2

River & Culture



이용수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수자원개발부
(lyswater@dohwa.co.kr)

송천 발원지 답사기

일시: 2008년 7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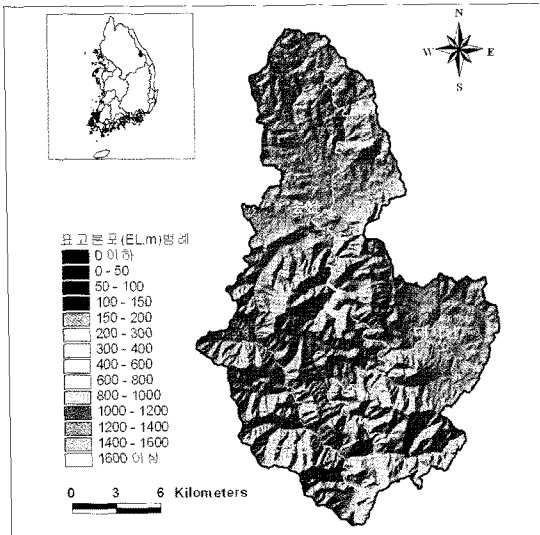
1. 송천 개요

한강발원지인 태백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광동호를 지나 북류하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구불구불 흐르면서 정선군 북면 소재지인 여량에 이르면 평창의 황병산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만나는데 이 하천이 송천(松川)이다. 한강 상류부에서 정선을 들어서기 전 비교적 큰 하천으로는 오대천과 송천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만나는 하천이 송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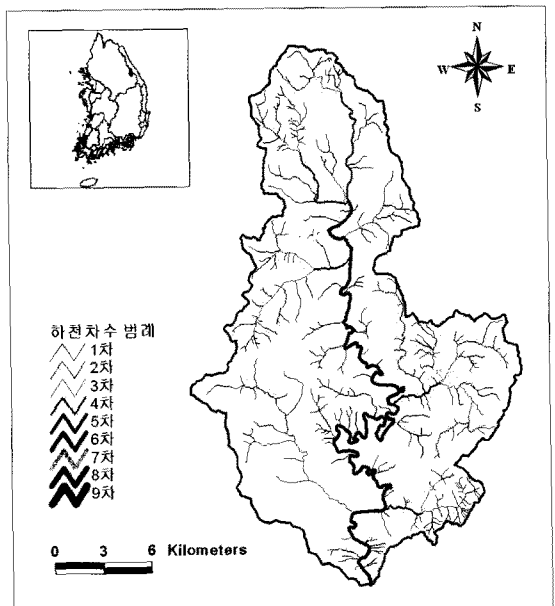
송천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소재한 백두대간의 하나이며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황병산을 발원지로 하고

있다. 발원지를 출발한 하천은 대관령의 푸른 초원지대(삼양축산 대관령 목장)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대관령면 소재지인 횡계를 지나고 계속 남류하여 도암댐에 흘러든다. 이후 도암댐을 지난 송천은 정선군 북면 여량리까지 산속의 계곡을 이리저리 휘돌아 거침없는 유로를 형성하며 흐른다.

송천유역은 북쪽으로는 양양의 연곡천유역과, 동쪽으로는 강릉남대천과, 서쪽으로는 오대천유역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한강의 본류인 골지천유역과 접하고 있다. 유역의 형상은 위로선 나뭇잎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맨 위쪽에서



〈그림 1〉 송천 표고분포도



〈그림 2〉 송천 하천차수도



(그림 3) 송천 하구(아우라지)

아래로 여러 지류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하폭이 커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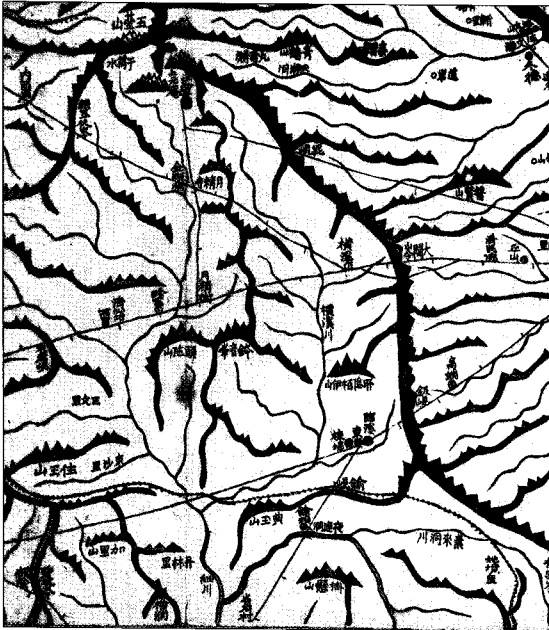
유역의 출구 지점은 옛날 이곳에서 한양으로 출발하는 뗏목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아우라지가 바로 하구지점인 것이다. 아우라지는 어우러진다는 뜻으로서, 두 물줄기가 어우러져 한강을 이루는 데에서 이 이름이 유래했다.

아우라지 강은 예전에는 천리 물길을 따라 떠나는 뗏목의 사발점이었다. 다른 강들이 호사스럽게 유유히 흐를 때, 이 강은 뗏목을 실어 나르는 힘든 소임을 마다하지 않았다. 강 길을 터주는 주변의 높고 깊은 산은 예부터 좋은 목재의 생산지였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 목재를 운반하는 유일한 길은 강이었고, 교통수단은 강 위를 흘러내리는 뗏목이었다. 별채 한 통나무는 배가 되어 사공이 젓는 대로 목숨을 걸고, 동강의 거센 여울을 넘어 남한강을 지나 마포나루에 닿는다. 이들은 때를 팔아 '때돈'을 벌었지만, 도중에 주막집에서 술과 여자와 구슬픈 정선 아라리에 취해 집에 오면 거의 빈털터리였다. 강에 대한 슬픈 사연은 먼 추억이 되었지만, 그래도 순박한 강변 사람들은 강을 아끼고 있다."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 유적지로도 유명한데, 강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을 나누던 처녀 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난 물줄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데에서 "아우라지 뱃사공아 날 좀 건네주게 / 짜릿글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 사시장철 님 그리워서 난 못살겠네"라는 가사가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문헌상에 있는 송천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송천(松川)이라는 말은 조선시대까지 없었던 명칭으로 일제강점기 때 전국하천조사를 실시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송천 유역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고지대이며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가 유역의 주된 나무이고 보면 이름을 송천이라 명명한 것은 의미가 깊다 하겠다. 대동여지도 및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고지도를 살펴보면 송천의 옛 이름은 횡계천(橫溪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발원지는 오대산의 동쪽 계곡에서 흘러나오고 횡계를 지나 남류하여 정선의 동북쪽에서 오늘날의 오대천과 합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우리나라 산천은 발로 누비면서 세세한 정밀지도를 만들었던 김정호도

1) 의남님의 블로그 - <http://blog.naver.com/hippolee47/30035188121>
 2) 위키백과 - <http://ko.wikipedia.org/wiki/>



(그림 4) 송천 발원지(대동여지도)



(그림 5) 송천 하구(1872년 지방도)

강원도 대관령 근처 오지에 있는 황계천의 하구는 제대로 답사를 못하였는지 한강을 만나기 전 오대천과 합류하는 것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골지천은 발원지인 태백의 금대산을 출발하여 내려오다가 송천을 만나고 다시 오대천을 만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오류는 대동여지도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1872년 지방도에는 송천의 하구가 오대천과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역시 지방의 관리들이 자기 마을을 그려 표기할 때는 제대로 된 지형을 표현했구나!

생각이 든다.

황계천에 관한 더 이상의 문헌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백과사전에에는 송천에 관한 어떤 자료가 있을까?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것으로 백과사전을 살펴본바 먼저 야후 백과사전에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강릉시(江陵市), 정선군(旌善郡) 등 산간지역을 흘러 남한강 상류로 유입하는 하천. 길이 62.1km.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의 황병산(黃柄山, 1,407m)과 강릉시 연곡면 신왕리에 있는 매봉(1,173m)과의 사이에서 발원한다. 수하리(水下里)에 이르러 발왕산(發旺山, 1,458m) 북쪽 기슭에서 흘러오는 수계와 합류하고 고루포기산과 발왕산 사이에 심한 곡류를 이루면서 남쪽으로 흘러간다. 정선군 북면(北面) 여량리(餘糧里)에 이르러 임계 쪽에서 흘러온 골지천(骨只川)과 합류하여 남한강 상류인 조양강(朝陽江)을 이룬다.』³⁾라고 되어 있어 발원지를 황병산으로 비교적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여타 사전도 대동소이하게 표현하고 있다.

송천의 발원지가 있는 황병산은 백두대간 길에 있는 소황병산 및 노인봉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황병산의 정상에는 군사시설이 있어 못 들어가며 또한 기지 아래로는 지뢰지대가 있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산이다.

황병산 및 소황병산의 황계쪽 아래로는 삼정평(三政坪)이라는 고원분지가 있으며 이곳에는 삼양목장이 자리 잡고 있고 목장의 가축을 키우기 위한 초지가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그림 같은 경관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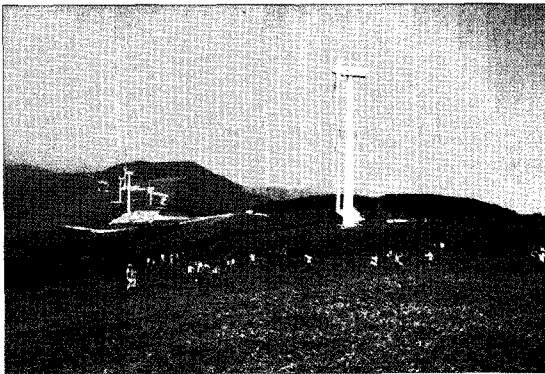
하천연구가인 이형석 씨의 글에 의하면 “높은 곳에 위치한 분지나 평지를 흔히 평전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전은 지리산의 세석평전, 양산 천황산, 신불산, 사자산으로 둘러싸인 사자평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곳 송천 상류에 펼쳐진 대규모의 고원분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평전이라 할 수 있겠다.”⁴⁾라 하였다. 또한 삼정평에 대하여는 “삼정평은 두 곳에 있는데 선자령에서 흐르는 물과 황병산에

3) 야후 백과사전 : <http://kr.dic.yahoo.com/>

4) 이형석 - 한국의 산하(1990, 홍익재)

서 시작하여 차항리 쪽으로 흐르는 물과 삼양목장 쪽에서 흐르는 세 줄기 냇물이 합류되는 황계리에 소(沼)를 형성하고 있어, 큰 우물과 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삼정평(三井坪)이라 부르는 곳과 황계5리, 현재 삼양목장 제2목장이 위치한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옛날 3정승이 이곳에 피난했다고 하여 삼정평(三政坪)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삼정평에는 삼정호(三政湖)가 있으며 이 곳은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새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그림 6) 대관령 삼양목장

발원지인 황병산 및 소황병산 일대와 그 아래 계곡에는 대관령 삼양목장이 자리 잡고 있다. 대관령 삼양목장은 1972년 한국 축산업계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출발하였다. 600여만 평의 초지목장은 축산업을 통해 대자연의 생명력을 식품에 활성화하고자 해발 850~1,400m의 높은 지대에 있는 광활한 초원에 수백 마리의 젖소, 육우 등이 뛰노는 동양 최대의 목

장을 건설하였는데 초지개발은 1972년에 개시되어 1985년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고랭지에서 겨울의 눈과 높은 기온차를 이겨내는 양질의 풀 “리드카나리그라스”와 “티모시”가 성공적으로 자라나 농약 살포 없이 무공해 목초를 만들었고 이의 성공에 힘입어 충남의 서산목장, 제주의 제동목장, 안성의 안성목장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는 백두대간의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종주산행의 발길이 잦아지고 목장의 뛰어난 경관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나 연간 많은 인원이 찾는 주요 관광자원으로서도 한 몫 하고 있다.⁵⁾

황계리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온 송천은 도암에 이르러 유역변경식 발전시설인 도암댐에 흘러든다.



(그림 7) 도암댐

5) 삼양목장 홈페이지 - <http://www.samyangranch.co.kr/index.asp>



(그림 8) 원앙새

원앙새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되었다. 몸길이 43~51cm, 몸무게 444~550g이다. 수컷의 몸 빛깔이 아름답다. 여러 가지 색깔의 늘어진 땃기와 흰색 눈 둘레, 턱에서 목 옆면에 이르는 오렌지색 깃털(수염깃), 붉은 갈색의 윗가슴, 노란 옆구리와 선명한 오렌지색의 부채꼴 날개깃털(은행깃털) 등을 가지고 있다. 암컷은 갈색 바탕에 회색 얼룩이 있으며 복부는 백색을 띠고 눈 둘레는 흰색이 뚜렷하다. 한국에서는 전국의 산간 계류에서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이나, 겨울에는 겨울을 나려는 무리들이 내려오므로 봄·가을의 이동 시기에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여름에는 4~5마리 또는 7~8마리의 무리가 활엽수가 우거진 계류나 물이 관 곳 또는 숲속 연못 등지에 살면서, 저녁에는 계류의 바위 위나 부근의 참나무 가지에 앉아서 잠을 잔다. 겨울에는 북녘에서 번식하는 무리가 내려와 저수지·수원지·호수·비닷가·낮

가 등지에서 몇 마리 또는 100~200마리씩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낮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 주위가 가려진 나무 밑, 바위, 물위로 뾰은 나뭇가지에 앉아 머리를 등으로 올리고 한쪽 다리는 들고 잔다. 한 배에 9~12(때로는 13~14)개에서 22개까지 알을 낳아 28~30일 동안 품으며 알을 깨고 나온 새끼는 나무 위의 구멍에서 땅 위로 뛰어 내려 물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 도토리류를 비롯한 나무열매를 즐겨 먹으며 달팽이와 작은 민물고기도 잡아먹는다. 한국·사할린섬·일본·타이완·중국(북동부)·영국 등지에 분포한다.

도암댐은 1989년 8월 유역변경을 위해 경사코아형 석괴댐으로 건설되었다.⁶⁾ 남한강 최상류인 송천에 댐을 막아 이루어진 도암호의 물을 지하도 수로를 이용하여 동해안에 떨어지게 하여 강릉수력발전소에서 발전한다. 수로 터널의 길이는 15.6km이며, 낙차는 640m로서 국내 최대이다. 도암호의 유역면적은 144.9km²이며, 총저수량 5,100만이고 이중 유효저수량은 4,000만이다. 도암댐과 함께 건설된 강릉수력발전소는 동해안 최초의 수력발전소인데, 이 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강릉시 남대천의 수질 오염 문제가 야기되었다.

지난 1991년 발전이 시작되어 매년 연간 1억8천만kWh 전력을 생산했던 도암댐은 2001년 3월에 민원에 의해서 운영이 정지되었다고 한다. 강릉 시민들이 남대천의 오염이 도암댐의 발전방류 때문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01년 3월에 도암댐의 발전은 중지된 채 아직까지도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천이 흐르면서 만들어 놓은 황계 일대는 동계올림픽 개최 최선정지로 동계스포츠의 메카이기도 하다. 현재도 동계올림픽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지원시설이 끊임 없이 지어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동계올림픽이 치러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는 겨울 스포츠의 메카가 전 세계인들의 동계스포츠 메카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2. 현지 답사

송천은 회사일로 황계 및 대관령을 넘나들면서 한번 쯤 답사해보기로 일찍부터 마음먹었던 하천이다. 송천의 발원지는 대관령목장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 내가 호기심을 갖게 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사유지에 있어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현재는 오대산 국립공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출입제한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인미답의 오지(?)가 아닌가 상상도 해 보았다.

발원지가 황병산인 것을 일찍부터 문헌을 통해 알았지만 직접적인 답사를 결정한 것은 정확한 발원지가 어디인지 확인해보려는 호기심에서였다.

송천 발원지도 역시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인 유건상씨와 함께 가기로 약속을 해 놓았었다. 일전에 금호강 발원지 답사 때 재미를 붙여 이번에도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2008년 7월 18일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러 간단하게 몸을 씻고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다.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꼭 오늘밤에 가서 자야 하나며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되라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은가? 오늘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며 옛날 얘기도 하면서 잠을 잔 후에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산에 오르자며 달래서 강원도로 차를 몰았다.



(그림 9) 송천 중류

밤 2시쯤 황계의 여관에 여장을 풀고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하면서 TV를 잠시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밖을 보니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제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오후에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었다. 기상대가 올해는 부쩍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보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였으나 약간의 비는 맞으며 답사하는 것도 추억이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에 출입금지구역 답사를 위한 허가를 의뢰하면서 답사 일자를 오늘로 잡아 놓았고,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다음에 또 답사일자를 잡기는 일에 바쁜 요즈음의 사정으로 보아 약간의 고생이 되더라도 오늘 강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싶어 그대로 강행하기로 하였다.

아침은 황계의 유명한 음식인 황태해장국을 먹었다. 대관령이나 진부, 황계, 강릉, 설악산 인근 등을 돌아다니면 황태덕장이니 황태찜이니 하면서 황태랑 관련된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기회에 황태에 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황태덕장

황태는 명태를 말린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명태만큼 별칭이 많은 것도 없다 한다. 말리면 북어, 얼리면 동태(凍太), 겨울에 잡은 것도 한자는 다르지만 동태(冬太), 가을에 잡은 것은 추태, 날것은 생태, 낚시로 잡은 것은 낚시태 또는 조태, 그물로 건져 올리면 망태, 원양어선에서 잡은 것은 원양태, 근해에서 잡으면 지방태, 새끼는 노가리, 물기가 약간 있게 꾸들꾸들 말린 것은 코다리, 겨울 찬바람에 노랑노랑 하게 말린 것이 황태 또는 노랑태, 기계 건조기에 하얗게 말린 것은 에프태, 덕장에 걸때 날씨가 따뜻해 물러지면 썩태, 고랑대에서 떨어지면 낙태, 하얗게 마른 것은 백태, 검게 마른 것은 먹태, 딱딱하게 마른 것은 강태, 대가리를 떼고 말린 것은 무두태, 손상된 것은 파태, 잘 잡히지 않아 값이 비싸면 금태라고 한다. 그리고 얼마나 친근한지 민간신앙에서도 한몫을 한다. 굿판에 반드시 오르는 것이 명태이고, 대문 문설주 위에 북달라고 매달아놓는 것도 명태이고, 새 차 사서 사고 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고 자동차 보닛 안에 넣는 것도 명태이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명태사랑은 유난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북어란 그냥 말린 명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냥 말린'의 표현은 적당한 바람과 햇볕만의 자연상태에서의 건조를 말하는 것이고, 황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거치는데 바람과 햇볕만으로는 안 되고 꼭 그

곳만의 장소에서 천우신조의 날씨가 따라 주어야만 된다고 한다.

황태는 원래 함경도 원산이 '고향'인데 원산 바닷가에서 겨우내 3개월 정도를 얼었다 녹았다 하며 마른 것이 황태이다. 이 지역에서는 황태라고 하지 않고 노랑태라고 불렀는데 6.25 이후 남쪽에서는 더 이상 황태를 볼 수도, 먹을 수도 없었는데 원산 외 지역에서는 명태를 노랑노랑 말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원산 출신 중 한 사람이 원산과 비슷한 겨울 날씨를 지닌 지역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원산 날씨와 비슷한 지역인 진부령 서쪽 경사면을 최적지로 찾았는데 이후 안개가 잦은 지역을 피해 인제의 용대리 및 대관령 서쪽 경사면인 황계리 등에도 황태덕장이 생겨났고 오늘 날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 겨울 날씨인 삼한사온이 반복되어야 황태의 질이 높아지는데 퐁퐁 얼어붙은 명태. 따스한 봄날에 서서히 녹으면 살이 폭신평신했으며 누런색을 띄게 되는 강원도의 황태는 사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물임에 틀림없다.⁷⁾

아침을 맛있게 먹고 황병산으로 출발하였다. 황계에서 대관령 올라가는 옛길로 올라서기 전 송천 다리를 지나 왼쪽으로 올라가면 대관령목장 가는 팹말이 보이고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대관령 삼양목장의 입구에 다다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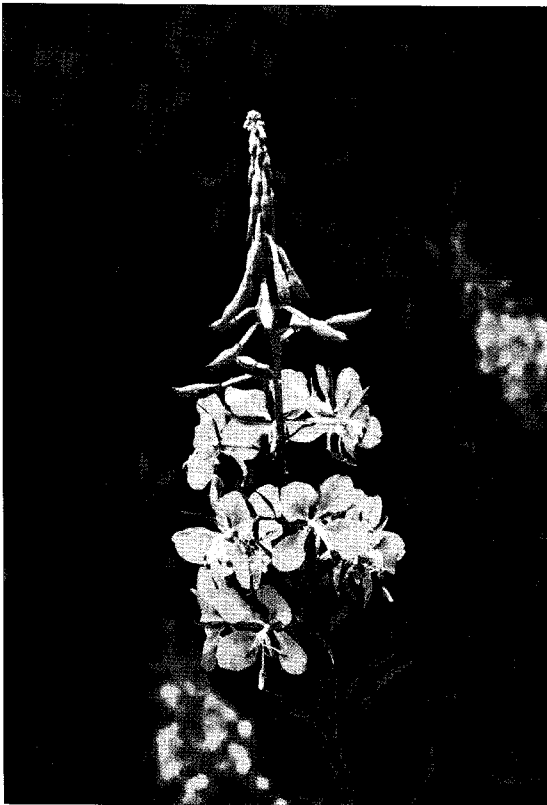
관광객이 꽤 많은지 관광버스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다. 입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협조 공문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목장 안으로 올라갔다. 삼양목장의 사무소에서 관계자에게 출입 목적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 목장의 상류에 있는 황병산으로 향하였다.

차창으로 흠뿌리는 비를 맞아가며 송천의 상류계곡을 향해 비포장도로를 약 10여km 올라갔다. 목장 측에서 관리를 위해 만든 도로이긴 하지만 하천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송천의 여름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기암괴석이 많은 것은 아니

7) 황태이력 - <http://www.yellowfish.co.kr/>

지만 울창한 숲 사이로 군데군데 평활하게 나있는 목장의 초지, 참나무 및 단풍나무 등 낮은 교목으로 이루어진 하천변 숲 등 인간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지역 특유의 신성함이 배어 나왔다.

드디어 삼정평에 이르러 삼정호(三政湖)까지 올라갔다. 삼정호는 아주 작은 호수로 원앙새가 서식하는 지역이므로 보호지역이라 표시되어 있었는데 주위는 넓은 초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11) 황병산정상 부근의 야생화

삼정평에서 바라본 황병산은 안개가 가득 끼어 있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정상을 볼 수 없었다. GPS에 의지하여 산으로 향하는 길을 택해 차를 몰고 올라갔다. 급한 경사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패어 있는 물웅덩이와 좁은 길 때문에 일반 승용차로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초지 사이로 난 길을 계속 올라가 중간 정도에 이르니 안개가 약간 걷혀서 멀리까지 보였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보는 안개 낀 반대편 능선의 경치는 말

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물론 탁 트인 시야가 전개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참을 미끄러운 길을 올라가니 드디어 황병산과 소황병산이 갈라지는 갈림길에 다다랐다. 2008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간판이 하나 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백두대간 종주, 과연 국토사랑의 올바른 방법일까요?’라고 우회적인 호소조의 문구도 같이 쓰여 있었다. 백두대간 종주가 국토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백두대간 길을 걸어 다니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많아 내리진 조치인가 싶었다.

허가를 받고 하는 답사이므로 우리는 잠시 내려서 의미를 되새기고 우회전하여 황병산 쪽으로 난 길을 택하였다. 그러나 약 500m 정도 옆으로 가니 철망으로 만들어진 군부대문이 막혀 있어 더 이상 진행은 불가하였다. 황병산 꼭대기에 있는 군부대에서 설치한 것으로 군부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여기까지 왔으므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차는 세워두고 문 옆의 소로를 따라 걸어서 답사하기로 하였다.

차에서 내려 우비를 입고 장구를 챙기고 황병산 군부대를 오르는 길을 따라 차항리 쪽에서 올라오는 길로 역으로 내려가면서 송천 발원지 물줄기를 확인하려는 몇 걸음 안되어서 아래쪽의 하천계곡이 보이고 도로 위를 쳐다보니 정상으로 뻗은 물줄기로 인한 구덩이가 연결되어 있었다. 정상 쪽으로 계속 하천이 발달하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로 위쪽으로는 지뢰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한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황병산에 지뢰지대라니... 이게 무슨 남북분단의 비극인가? 그리고 여기는 휴전선으로부터도 한참 떨어져 있는 지점이 아닌가?

더 이상의 답사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확인되는 것으로는 지도상 하천 시작점 위로도 하천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과 사무실에서 정상을 향해 그은 여러 개의 추정하천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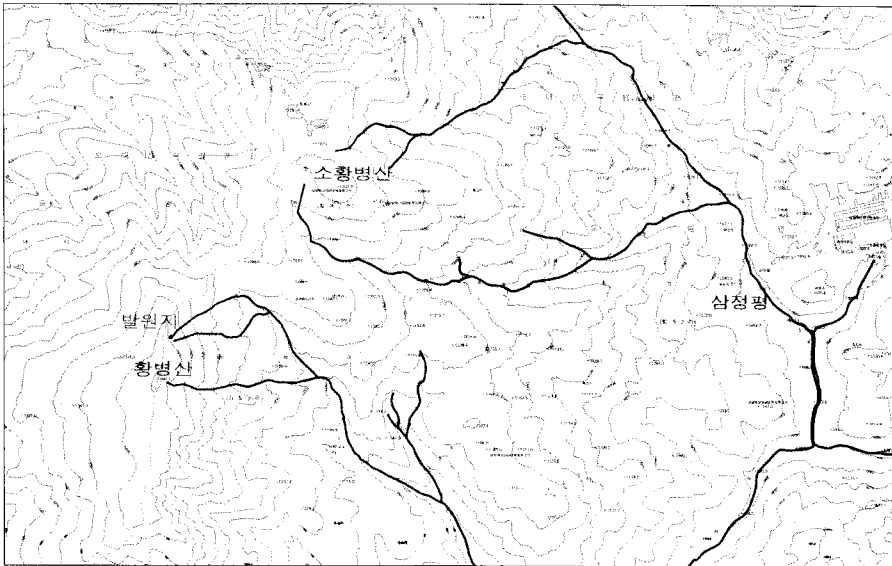
제로 현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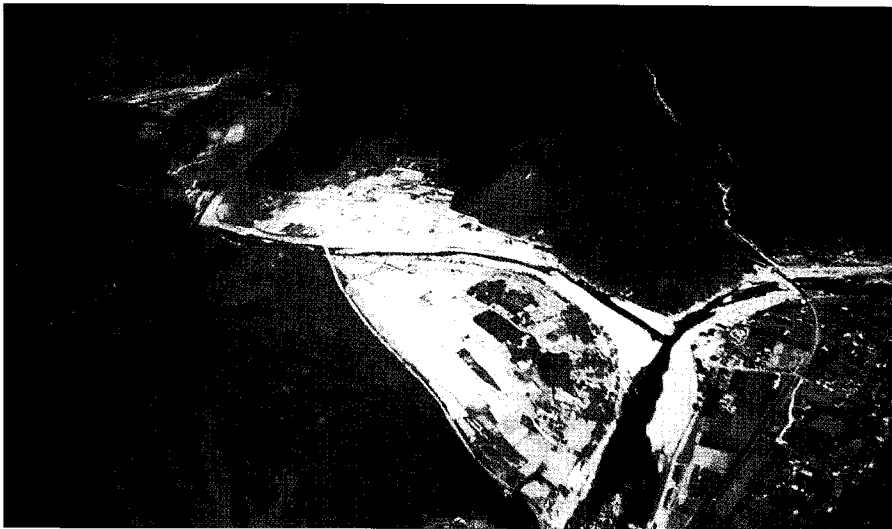
〈그림 12〉 안개에 가려진 황병산

사무실에서 확인한바 송천의 발원지는 황병산 북동계곡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비와 안개 때문에 정상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잠시 걸어본 황병산 자락의 도로 옆에는 수많은 잡자리와 들꽃이 화려하게 피어있어 이곳이 동식물의 주요 서식처 일 거라는 상상은 할 수 있었고 대관령 목장의 광활한 초지를 발로 밟으며 걸어 보았고 또한 소황병산 정상 인근에서 바라보는 동해 쪽의 안개 가득한 동해의 멋스러움을 눈에 넣어 가져올 수 있었다는 위안으로 답사를 끝마쳤다. ●



〈그림 13〉 송천 발원지



〈그림 14〉 송천 하구 한강 합류점